

↓ 코스피 2842.28 (-21.96)	↓ 코스닥 933.90 (-10.04)
↓ 금리 (연이율) 2.119 (-0.008)	↑ 환율 (원/달러) 1191.70 (+1.60) (19일)



한화손해보험 com

심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게임공룡 된 MS, 메타버스 승부 '혈맹' 삼성도 콘텐츠 수혜 기대감

LG엔솔 청약증거금 114조 '신기록'

MS, 80조에 블리자드 인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타크래프트를 갖게 됐다.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다.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콘텐츠 확보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 업계의 콘텐츠 전쟁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MS는 18일(현지시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687억달러, 한화로 약 80조원 수준이다.

◆ MS, 세계 3위 게임사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전세계에 4억 명 규모 게임 유저를 보유한 대형 게임사다. 액티비전과 블리자드, 그리고 영국 킹 스튜디오가 합쳐져있다.

대표 게임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를 비롯해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와 크래쉬 밴드캣, 그리고 킹 스튜디오의 스마트폰 게임 캔디크러시 시리즈 등이다. 블리자드가 '배틀넷'이라는 게임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업계에서는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에 이어 매출 기준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MS는 전세계 게이머 숫자가 30억명에 달하고 있다며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배경을 소개했다. 전세계에서 30여개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하고 인기 퍼블리싱과 e스포츠 기반까지 확보하게 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요 게임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전세계 4억 유저 보유 스타·오버워치 등 다수게임 운영 MS, 게임IP 활용 메타버스 공략 게임패스 콘텐츠도 대폭 강화돼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우위 확보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이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게임 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커뮤니티 및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메타버스·게임 리더십 확보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가장 기대감을 나타낸 분야는 메타버스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기 IP와 게임 개발 역량 등이 추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MS도 이미 인기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다. 콘솔 게임인 엑스박스의 프랜

차이즈인 헤일로와 포르자 시리즈는 물론, 마인크래프트와 엘더스크롤 역시 개발사 인수를 통해 MS의 게임으로 서비스 중이다. 이들 게임은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구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IP를 활용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단일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사 IP에 더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술과 IP, 캐릭터 등을 활용해 메타버스 시대 리더십을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MS는 게임패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면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시장 우위를 확고히할 수 있게 됐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을 조만간 게임패스에 편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패스는 MS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다. 구글 스타디아와 엔비디아 지포스나우와 경쟁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2500만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증거금으로 114조원이 몰렸다. 사상최대다. 종전 역대 최고치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증거금 80조9017억원을 넘어선 것.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 청약자에게 총 1097만482주를 배정한다. 비례 경쟁률은 최고 422.46대 1(미래에셋증권), 최저 129.16대 1(신한금융투자)이다. 최종 경쟁률 기준 ▲대신증권 1.75주 ▲하이투자증권 1.68주 ▲신영증권 1.58

주 ▲신한금융투자 1.38주 ▲KB증권 1.18주 ▲하나금융투자 1.12주 ▲미래에셋증권 0.27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2일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기관 주문액 1경5203조원을 모아 사상 처음으로 '경' 단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쟁률 역시 2023대 1로 코스피 시장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최상단인 30만원으로 결정됐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百, '방역패스'에도 장사 잘했다

새해 첫 세일기간 매출 53% 증가 명품값 인상, 빨라진 명절 등 영향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린 백화점 업계가 방역패스 시행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새해 첫 정기세일 기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상승한 것.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까지 나오면서 백화점 업계의 신년 매출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신년 정기세일 매출은 전년도 세일기간 매출 대비 평균 53% 상승했다. 백화점업계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히 정기세일을 진행했다.

이번 세일기간 동안 신세계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54.4% 늘었다. 명품이 77.9%, 여성 패션 55.1% 남성 패션 78.8%를 기록하며 명품·하이패션이 매출액을 견인했다.

롯데백화점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 전년 대비 53.6% 증가했다. 해외 패션이 67%, 화장품 54.2%, 남성 스포츠 49.8%, 여성 잡화 48.7%가 인기였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명품 매출이 78.1% 늘었고 여성 패션 84.1%, 남성 패션 86.7%, 골프 131.2%, 아웃도어 127.1% 등 증가 폭이 컸다.

백화점업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운영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3000㎡ 규모 이상 대규모 상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전국 백화점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정기세일 기간 중 백화점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명품 브랜드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 ▲전년도 보다 빨라진 설 명절과 설 선물 프리미엄화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의 상승세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마트나 슈퍼가 온라인 신선식품 채널과 경쟁을 하는 데 비해 백화점은 이커머스와는 별개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실종된 분들과 사망하신 분, 고통받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정동 아파트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진단과 더불어 안전과 품질을 대폭 강화하여 우려와 불신을 끊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절박한 심정과 환골탈태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고 안전 최우선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일동